



한국 공교육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 정병오

들어가는 말

최근 한국 교회 가운데 기독교 대안학교와 기독교 홈스쿨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러한 운동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명하셨다는 말씀에 신학적 기반을 두고 있다. 부모들이 담대히 공교육을 포기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감내하게 하는 바탕이 되는 것 같다.

하지만 공교육을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성경이나 신학에서 많지도 않고 명료하지도 않다. 공교육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기독교인이 자녀를 기독교 대안학교나 기독교 홈스쿨에 보내는 게 신앙적 결단임은 이해한다. 그렇다고 해서 공교육에 자녀를 맡기는 건 불신

앙적인 태도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공교육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일까?

공교육의 기원과 전개

널리 알려진 바대로 유럽에서 공교육은 루터에 기원을 두고 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당시 성직자 후보생을 중심으로 수도원에서 행해지던 교육을 비판한다. 루터는 독일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교육은 성직자 후보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성벽을 쌓기보다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실제로 이러한 루

서구의 공교육은 하나님이 모든 아동 가운데 심어주신 각각 다른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발굴하는 것이 학교의 제일 중요한 교육 목표라는 관점에서 교육체제와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터의 주장대로 독일에서 근대 공교육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루터파 교회가 국교로 자리잡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 공교육에 있어서 선진국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루터가 주장했던 공교육은 오늘날 개념의 공교육과는 큰 차이가 있다. 국가가 재정을 책임지고 모든 아이들에 대한 차별없는 교육을 주장했다는 면에서 오늘날 공교육의 기초를 쌓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성경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이해하는 교과로서의 인문학과 자연과학, 예술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즉, 루터는 공교육과 기독교학교가 결합된 형태의 학교를 구상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당시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한 발상이었을 것이다.

루터의 이러한 사상은 근대 유럽 공교육의 기본 바탕이 되었다. 하지만 이후 공교육은 여러 영향에 의해 루터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즉, 근대 시기로 접어들면서 학교를 통해 국가가 원하는 국민을 만들기를 원했고, 과학의 발달과 함께 유럽이 급격하게 세속화되면서 공교육에 있어서 기독교 교육은 점점 배제되었다. 이에 따라 서구 학교 교육과정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가르치며, 사물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게 되었다. 죽음 이후 영원한 세계와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부정하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공교육은 그 목표와 아동관, 학교 운영에 있어서 기독교적 가치가 매우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기독교적 전통과 루터의 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서구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아동 가운데 심어주신 각각 다른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

고 발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교육 목표라는 관점에서 교육체제와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의 제1주체로서의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자치가 매우 잘 반영되어 있다.

한국의 공교육은 어디에 서 있는가?

서구 근대 교육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세속화된 교육과정은 과학이나 신학문이란 이름으로 그대로 수용되었다. 하지만 교육 가치와 철학, 아동관은 출세를 지향하는 현세적인 유교 가치로 바뀌어졌다. 전통 신분제도가 무너지고 교육 받은 사람이 상류층을 형성할 기회가 열리면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까지 생겼다. 교육이 은사와 재능 발견이 아니라, 출세를 위한 입신양명의 수단이 되고 만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학교 운영과 체제는 국가 중심의 중앙집권적 틀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 그러다 보니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교육부와 교육청을 바라보고 섬기는 구조로 고착되었다. 이로 인해 학부모가 교육의 제1주체라는 교육적 원리가 자리를 잡지 못했다.

현재 한국 교육은 모순을 덧입은 기형을 취하고 있다. 서구 사회처럼 교육에서 가치가 배제되어 있고,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종교라는 이유로 배척해 버린다. 교육주체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관료 체제에 지배당하는 경직성, 교육을 단지 출세 도구쯤으로만 여기는 입시위주의 교육 역시 안타까운 현실이다. 서구 교육은 매 학년 아이들이 도달해야 될 절대적 기준을 정해놓고, 대부분의 아이들로 하여금 거기에 이르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반면 우리 교육은 그저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려고만 한다. 부모와 교



엄밀하게 생각하면, 종교중립이나 가치중립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교육에서의 기독교 배제는 물질주의와 무신론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다종교사회인 한국에서 직접적인 기독교 교육을 반영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사, 학생 모두의 관심사는 '몇 등'이다. 그러니 아이들은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더 떨어질까봐 불안해한다. 공부 노동이 되었고, 학부모들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휘청 거린다.

기독교인은 공교육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공교육은 크게 세 가지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국가와 사회의 공교육이 바로 서는 일이다. 공교육은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은사와 재능에 따라 자신을 발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부모가 일차적인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루터도 말했듯, 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으므로 국가가 이 책무를 완수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이

나 국가적 지원이 약화되면 결국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 받기가 어려워진다.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고 강화하는 것은 이웃사랑 차원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사회가 공교육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교육이 가진 가치중립 혹은 반기독교성의 문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래 공교육은 내용적으로 기독교학교의 성격을 가지고 출발했다. 하지만 서구 사회의 탈가치 현상과 함께 기독교가 학교의 교육 내용에서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종교중립이나 가치중립은 있을 수 없다. 때문에 공교육에서의 기독교 배제는 결국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는 물질주의와 무신론의 확산으로 이어질

각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른 신앙 안에서 양육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요동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도록 훈련하고 격려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제일 기본적인 일이다.

수 있다. 그렇다고 다종교사회인 한국에서 공교육 가운데 직접적인 기독교 교육을 반영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가정에배와 대화가 중요해진다. 부모로부터 진리와 믿음에 대해 들을 기회조차 없다면 아이들은 세속화된 교육에 물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나아가 크리스천 교사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기독교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죽은 교육 속에 생명을 불어 넣도록 말이다. 가능하다면 기독교자들과 연합하여 공식 교육과정 가운데 기독교적 가치를 담아내는 작업을 시도해 봄도 좋겠다.

끝으로 한국 공교육이 가진 '성적에 의한 한 줄 세우기',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의 문제다. 사실 이 문제는 공교육을 넘어서 한국 사회가 가진 왜곡된 체제와 가치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거나 기독교 홈스쿨을 한다 해도 한국 사회에 사는 한 이 문제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기는 쉽지 않다. 사실 교회는 이런 왜곡된 가치관을 넘어서는 기독교적인 교육관을 제시하고 사회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명목으로 성적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 결과적으로는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전승의 실패에 몰려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진리가 사라진 교육 사회에 싸움을 선포해야 한다. 기독교 공동체로서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하며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또한 갈수록 극단적으로 가는 승자독식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서

한국 공교육은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는 물론이고 일반 교육 차원에서도 너무나 많은 문제점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기독교 대안학교나 기독교 홈스쿨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 시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물론 '기독교'라는 이름만 걸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전심으로 교육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헌신하는 자세가 있어야 가능하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녀들을 바른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세상 가치관에 요동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도록 훈련하고 격려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교회가 한국 공교육의 빈 부분을 채우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기독교 대안학교나 기독교 홈스쿨에 제한할 필요는 없고 또 해서는 안 된다. 우선 각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른 신앙 안에서 양육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요동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도록 훈련하고 격려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제일 기본적인 일이다.

다음으로 교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인이 없는 교육이기도 하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많은 부분들이 바뀔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학교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따라 교육 내용을 바꾸어가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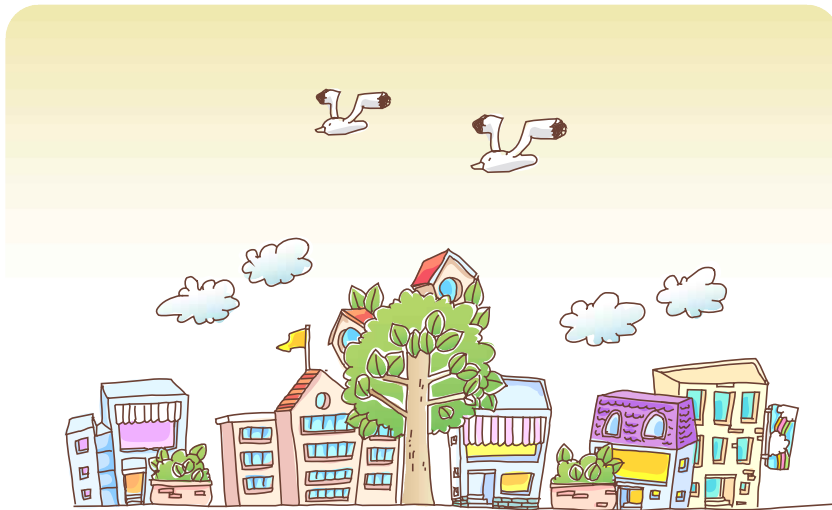


입시 위주 한국 공교육의 가장 큰 빈 피해자는 가난과 학업 성적의 부진으로 인해 신음하는 아이들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교회 청년들이 지역 학교로 들어가 소외된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고 실력을 키워주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물론, 그리스도인 학부모들도 학교운영위원회를나 교육시민운동을 통한 교육 변화에도 참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지역의 학교 학교운영위원이 되어,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을 신실한 신앙과 올바른 교육 철학을 가진 분으로 모셔오고, 그 교장선생님이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독교사들을 모셔와서 공교육을 바꾸는 모델들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모델이다.

입시 위주 한국 공교육의 가장 큰 빈 피해자는 가난과 학업 성적의 부진으로 인해 신음하는 아이들이다. 한국 공교육은 이들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이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교회 청년들이 지역 학교로 들어가 소외된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고 실력을 키워주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교회에서 시작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들도 글로벌 리더나 기독교 인재 양성을 넘어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병오 대학에서 윤리교육을 전공하고 청운중, 장충여중, 양화중, 문래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쳤다. 현재는 초중고에 근무하는 기독교사들의 연합모임인 (사)좋은교사운동 대표로 상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입시사교육바로세우기기독교운동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